

#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 분석

양현주<sup>1</sup> · 서지민<sup>2</sup>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sup>1</sup>,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sup>2</sup>

## Concept Analysis of Effective Breastfeeding

Yang, Huyn-Joo<sup>1</sup> · Seo, Ji-Min<sup>2</sup>

<sup>1</sup>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nd clarify the concept of the effective breastfeeding. **Methods:** This study used Walker and Avant's process of concept analysis. **Results:** Effective breastfeeding is how to give infant adequate milk, which fulfills needs of mother and infant, from her breast so that they can be satisfied with the process and results. It included the effective breastfeeding properties as follows: feeding behaviors (positioning, latch on, and suckling), transferring a breast milk to an infant,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satisfying their desires (satisfaction, comfort, mother's self-confidence, infant's adequate weight gain and defecation, adequate breastfeeding interval). The antecedent of effective breastfeeding were anatomical and functional normal breast, breastfeeding knowledge and steady-state of mother, and feeding desire, rooting reflex and normal oral cavity of infant. The consequences of effective breastfeeding were exclusive breastfeeding, infant and maternal health and wellbeing, and achievement of mother and infant attachment. **Conclusion:** The meaning of effective breastfeeding defin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 the effectiveness breastfeeding assessment tool and the nursing intervention for ineffective breastfeeding.

**Key Words:** Breastfeeding, Concept analysis, Effectivenes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모유는 생후 첫 일 년간 영아의 성장과 건강에 가장 유익한 자연 발생적인 식품이며, 모유수유는 영아의 균형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Wojnar, 2004). WHO와 UNICEF (World Health Organization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3)에서도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출생 후 6개월 동안은 완전 모유수유를 해야 하며,

그 이후로도 2년 이상 보충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유수유가 영아와 모성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유수유율은 24%로 미국의 52%, 유럽의 75%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모유수유 시도의 약 50%가 출산 4주 이내에 모유수유를 종결하는 양상을 보인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2006). 모유수유의 조기 종결은 유방울혈, 젖 물리기 어려움, 유두 손상, 젖양의 부족, 유두통증 등의 수유 관련 문제에 산모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Chin &

**주요어:** 모유수유, 개념 분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eo, Ji-Min,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omeo-ri, Mulgeum-eup, Yangsan 626-870, Korea.  
Tel: 82-51-510-8351, Fax: 82-51-510-8308, E-mail: seojimin@pusan.ac.kr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 지원(2년)으로 수행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투고일: 2011년 8월 18일 / 1차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7일, 2차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5일

Amir, 2008), 이러한 수유 관련 문제는 대부분 수유초기에 효과적인 모유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특히 출산직후에 젖양이 충분치 않다고 인지하거나 유두통증을 경험한 산모들은 보충수유로 부족한 젖양을 보충하거나 젖병수유를 선택하기 쉽다. 보충수유는 영아의 젖 빨기 욕구를 감소시키며, 젖병사용은 유두혼동을 일으켜 젖 물기와 빨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젖을 빠는 횟수를 감소시키거나 유방을 충분히 비우지 못하게 하여 유방울혈, 유두통증, 젖양 부족 등을 가중시킴으로써 모유수유를 조기에 종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Kim, 2003; Mulder & Johnson, 2010).

모유수유의 조기종결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직후에 효과적인 모유수유를 통해 젖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유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사는 모유수유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유수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산모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유수유는 모성과 영아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Leff, Jefferis, & Gagne, 1994)으로 각자의 수유행위뿐 아니라 모성과 영아의 모유수유행위, 상호작용, 수유결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성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모유수유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모성과 영아의 개별적인 모유수유행위의 적절성과 모유수유 지속기간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여 왔다(Mulder & Johnson, 2010).

국외에서는 이미 모유수유 효과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대 초부터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Jensen, Wallace, & Kelsay, 1994; Mulford, 1992; Shargo & Bocar, 1990). 이후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은 모유수유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지만 개념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Mulder (2006)는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개념적 정의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임상에서의 모유수유 효과성 평가와 관련 연구의 수행이 저해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개념적 정의의 개발은 모유수유의 문제점을 예측하여 추후 간호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에는 1999년 국제 모유수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되면서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아직까지 의료계 전반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성공적인 모유수유’, ‘모유수유에 성

공하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 문헌을 검색하였을 때 2편의 논문(Jung, 2008; Yang, Lee, & Lee, 2005)만 검색될 정도로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05)의 개념분석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여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모유수유를 유도할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 (2005)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여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05)의 개념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모유수유에 대한 개념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이 기존 문헌에 어떻게 사용되고 정의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개념의 속성을 밝히기 위해 활용 가능한 문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범위를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사전적 정의와 모유수유 관련 연구에서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정의, 주요 특징, 의미들이 기술된 내용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국내논문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원(www.riss4u.net)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 정보검색을 통해 ‘효과적인 모유수유’를 주제로, 국외논문 검색은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와 PubMed를 통해 ‘effective breastfeeding’, ‘breastfeeding assessment tool’을 주제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검색하여 국내논문 100편과 국외논문 1,275편이 검색되었으나, 초록과 제목을 통해 효과적인 모유수유에 대한 개념 정의나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기에 적절한 국내논문 2편과 국외논문 10편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문헌에 기술된 개념의 특징을 추가로 분류하고 확인하기 위해 모유수유를 위한 지침서(Kim, 2003),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지침서(Korean Committee for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5), 유방관리학(NESS, 2007), 북미간호진단협회(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NANDA])의 간호진단(Carpenito, 2006)의 단행본 4권에 나타난 개념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분석을 위해 Wilson (1963)의 개념분석 과정 열 한 단계를 여덟 단계로 수정하고 단순화한 Walker와 Avant (2005) 분석방법의 개념 선정, 개념분석의 목적 결정, 개념의 사용범위 확인, 개념의 속성 규명, 개념의 모델사례 제시, 추가사례(유사사례, 관련사례, 반대사례, 창안사례, 불법사례) 제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확인, 경험적 증거 규정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 선정

모유수유가 영아의 균형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유수유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출산 4주 이내에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산모도 많은 실정이다(MHW, 2006). 6개월 이상 모유수유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출산초기에 모유수유를 통해 모성과 영아가 상호간에 만족감을 느끼고 수유과정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어야 함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다(Nelson, 2006). 이는 모유수유 과정과 결과가 효과적일 때 산모가 원하는 기간까지 모유수유가 지속될 수 있으며, 모유수유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계획된 기간까지 모유수유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출산초기에 모유수유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모성과 영아의 모유수유행위의 적절성과 모유수유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모유수유 효과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유수유에 대한 개념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

성을 느껴 본 개념을 선정하였다.

### 2.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분석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ker와 Avant (2005)의 개념분석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여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3.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사용범위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문헌 내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적 정의 및 타 학문분야와 간호학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

#### 1) 사전적 정의

효과적인 모유수유란 ‘효과적(效果的, effective)’이라는 관형사와 ‘모유수유(母乳營養, breastfeeding)’라는 명사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사전에 ‘효과적인 모유수유’라는 단어는 실려 있지 않았다. 따라서 ‘효과적’이라는 관형사와 ‘모유수유’라는 명사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IKL], 2010)에서의 ‘효과적’이란 뜻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Collins English Dictionary (2010)에서는 “Having an intended or expected effect”로 “기대했거나 의도했던 효과나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NIKL, 2010)에서는 “영아나 유아에게 엄마 젖을 주는 것”, 옛센스 한자사전(Minjungserim Editorial Board, 2007)에서는 “어미가 스스로의 젖을 먹이는 자연영양법”, Collins English Dictionary (2010)에서는 “젖병이나 기타 용기가 아니라 모성의 유방으로부터 직접 영아에게 젖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효과적인 모유수유란 모성이 유방을 통해 영아에게 직접 젖을 주는 모유수유의 과정이 기대했던 좋은 결과로 나타나거나, 좋은 효과를 가지는 상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

#### 2) 타 학문에서의 개념사용

의학, 영양학, 인류학 등의 타 학문분야에서 효과적인 모

유수유 개념에 대해 언급한 문헌은 찾기 어려웠으며, 모유 수유율, 영아의 영양, 모성 및 영아의 건강과 관련된 문헌에 ‘성공적인 모유수유’, ‘모유수유에 성공하기’, ‘성공적인 모유먹이기 10단계’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 3) 간호학에서의 개념사용

모유수유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수유방법(WHO & UNICEF, 2003)으로, 단일 행동이 아니라 수유신호에 따라 젖 물기와 빨기, 젖이 이동되는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단계(Mulford, 1992; Shrago & Bocar, 1990)를 거쳐, 모성과 영아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복잡한 상호작용과정(Leff, Jefferis, & Gagne, 1994)으로 기술되고 있어, 모유수유는 모성이 영아에게 젖을 공급하는 모성과 영아간의 일련의 상호작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성과 영아 간의 모유수유 상호작용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성이 영아의 신호를 적절히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는 민감성과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Shin, 2006). 그러나 Papousek (1994)의 연구(cited in Shin, 2006)에 의하면 영아의 비언어적인 수유신호를 초보엄마들이 알아내어 그에 맞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대다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한다. 또한 모유수유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는 출산 4~6주까지로(Ertem, Votto, & Leventhal, 2001), 이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대다수의 산모가 모유수유를 종결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출산초기에 모유수유를 통해 모성과 영아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는지 사정하여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면 모유수유 조기종결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외에서는 출산초기의 모유수유 효과성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이 사용된 문헌을 보면, 국제 모유수유전문가협회(International Lactation Consultant Association [ILCA], 2005)는 효과적인 모유수유에 대해 모유수유과정(젖 물리기, 빨기, 모유전송, 유두통증, 빠는 시간)에 문제가 없고 좋은 수유결과(영아의 정상적인 체중증가와 배설, 모성과 영아의 만족감, 유방과 유두 통증이 없고 편안함, 일정한 수유간격)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Mulder (2006)는 “모성과 영아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양으로 모유가 모성의 유방에서 영아에게 직접 전송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영아의 배고픔, 수유자세 잡기,

젖 물리기와 빨기, 젖의 이동을 거쳐 영아가 만족하게 되고 적절한 배노와 체중증가가 일어나며 유방통증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북미간호진단협의회(NANDA)는 ‘효과적인 모유수유’라는 간호진단을 개발하고 “모유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모성과 영아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어서 서로 간에 적응하고 만족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Carpenito, 2006). 그러나 이 진단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필요시에는 모유수유장애(Interrupted Breastfeeding), 비효과적인 모유수유(Ineffective Breastfeeding), 비효율적인 수유(Ineffective Infant Feeding Pattern) 등의 진단을 참조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Carpenito, 2006).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은 모유수유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어 왔고, Mulder와 Johnson (2010)은 모유수유가 확립되기 이전인 출산 후 4~6주까지 모유수유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Matthews (1988), Shrago와 Bocar (1990)와 Jensen 등(1994)은 1회의 모유수유과정과 결과를 사정하는 것이며, 평가결과가 모두 만족스럽다면 효과적인 모유수유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Riordan, Bibb, Miller와 Rawlins (2001)가 개발한 측정도구는 젖 물리기, 삼키는 소리, 유두종류, 편안함, 도움의 5개 영역을 측정하고, Matthews (1988)의 측정도구는 수유 준비도, 근원반사, 고정, 빨기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유수유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성과 영아의 수유행위뿐 아니라 모성과 영아의 상호작용, 수유 결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개발된 도구들은 영아에 관한 평가에만 초점을 두어 모성에 관한 평가가 부족하거나 모유수유의 효과성외의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제한점이 있다. 최근에 개발된 BBS (Beginning Breastfeeding Survey Items; Mulder & Johnson, 2010)도 효과성 평가에 중요한 항목인 수유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모유수유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고 일관된 의미로 사용되지 못하여 모유수유 효과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여러 가지 속성 중 각기 다른 속성을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모유수유 효과성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외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경우도 드물다. 국내에는 2002년 국제모유수유 학술대회에서 모유수유 효과성 측정도구가 번안되어 소개되었지만

(KLCA, 2002), 아직까지 실무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모유수유 평가에 대한 용어로 ‘모유수유 행위능력(Park & Koh, 2001)’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영아의 수유능력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 지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사이에는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모유수유 관련 분야 전반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성공적인 모유수유 개념은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유사개념으로 국내 모유수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1990년에 WHO와 UNICEF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운동’을 전개하면서 실천지침으로 ‘성공적인 모유먹이기 10단계’를 준수하도록 규정한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WHO와 UNICEF (2003)는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보충식이 없이 출생 후 6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를 지속하여 건강한 영아와 모성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WHO와 UNICEF (2003)의 정의에 제시된 모유수유 방법과 기간이 충족되었을 때 모유수유에 성공하였다고 보고, 모유수유를 조사 시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4.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주요 속성

##### 1) 속성의 근거

- ① 모성과 영아 상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복잡한 상호작용과정이다(Leff, Jefferis, & Gagne, 1994).
- ② 모성과 영아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양으로 모유가 유방에서 영아에게 직접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이다(Mulder, 2006).
- ③ 모유가 모성의 유방에서 영아에게 전송되게 하는 기술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며, 수유자세, 접촉, 빨기를 포함한 수유과정의 결과이다(Livingstone, 1995).
- ④ 모유수유과정에서 모성과 영아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어서 서로 간에 숙달되고 만족하는 상태이다(Carpenito, 2006).
- ⑤ 모유수유과정에 문제가 없고 좋은 수유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ILCA, 2005).
- ⑥ 모유수유를 통해 영아는 만족감을 느끼고 월령에 맞는 체중증가 및 배설, 일정한 수유간격을 유지하며, 모성은 편안함, 자신감과 만족감을 경험한다(ILCA, 2005; Mulder, 2006).

##### 2) 확인된 주요 속성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이 사용된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차원은 모성, 영아, 모성-영아 상호작용의 3차원이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유행위(수유자세, 젓 물기, 빨기)
- ② 모유전송
- ③ 모성-영아 상호작용
- ④ 욕구충족(모성과 영아의 만족감과 편안함, 모성의 자신감, 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 일정한 수유간격)

#### 5.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모델사례

모델사례는 개념의 모든 중요한 속성을 포함하는 사례를 말하며, 정확하게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 실제 생활의 예가 될 수 있다(Walker & Avant, 2005).

정상 분만으로 출산한 지 14일째인 아기는 젓 먹인지 3시간이 경과하자(일정한 수유간격) 잠에서 깨어나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자신의 손을 입에 가져다 빨려고 한다. 엄마는 아기에게 젓을 먹이기 전에 소변으로 푼 젓어 있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엄마는 하루에 5~6개의 소변 기저귀와 2~3번의 대변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으며, 오늘 아침 체중계를 통해 아기의 체중이 출생 시 체중을 회복(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한 것을 확인하며 자신의 모유수유가 잘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모성의 자신감). 손을 씻은 후 그녀는 수유쿠션을 허리에 감고 어깨와 팔을 긴장시키지 않은 채 부드럽게 아기를 안아 아기의 몸과 그녀의 몸이 가깝도록 마주보게 안았다(모성-영아 상호작용). 이때, 아기의 얼굴은 엄마의 유방을 향해 있으며, 아기의 배와 엄마의 배는 마주 닿아 있고, 아기의 머리와 몸은 일직선이었다(수유자세). 그녀는 한쪽 팔과 손을 이용하여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유방을 C자 모양으로 받친 채, 유두를 아기의 입술에 갖다 대어 가볍게 스치게 했다. 그러자 아기가 입을 벌렸으며 아기의 입이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 엄마는 아기의 머리를 그녀의 유방 쪽으로 재빠르게 당겨 유륜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깊숙이 물렸다(젓 물기). 아기의 입은 ‘K’자 모양으로 크게 벌어져 있고, 윗입술과 아래 입술은 바깥으로 뒤집어져 있었으며, 아기의 코끝과 아래턱은 엄마의 유방에 살짝 닿아있었다(젓 물기). 엄마의 유방을 입천장으로 압박한 채 아기의 혀는 울동적으로 움직였으며, 아기가 젓을 힘차게 빨 때마다 아기의 관자놀이와 아래

턱이 움찔거리며, 처음에는 빠르게 빨다가 천천히 깊게 빨고 가끔 쉬는 것을 자극하지 않아도 반복하며(빨기), 아기가 빨고 삼킬 때마다 목구멍으로 젖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입 밖으로 젖이 조금씩 새어나오기도 했다(모유전송). 젖 먹인 지 20분 정도가 지나자 아기는 빨고 삼키는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하더니 유두를 물고 있는 힘이 약해져, 곧 빠는 것을 멈추고 잠이 들었다. 수유를 끝낸 아기의 얼굴과 표정은 매우 만족하고 평온해 보였으며, 아기의 모든 근육들은 이완되어 있었다(영아의 편안함과 만족감).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려 다시 빨도록 자극을 주었으나 반응이 없자, 엄마는 젖꼭지를 빼고 트림을 시킨 후 아기를 다시 자리에 눕혔다(모성-영아 상호작용). 수유를 끝낸 엄마는 유방이 비워진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고(모유전송), 수유 후에도 유두나 유방의 통증이 없는 편안한 상태였으며 평온하게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자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되었고 자신이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과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모성의 편안함과 만족감).

위 사례는 모성과 영아의 모유수유 상호작용 과정 중 수유자세, 젖 물기, 빨기의 수유행위가 적절하며, 모유전송, 모성과 영아의 상호작용, 모성과 영아의 욕구충족(모성과 영아의 만족감과 편안함, 모성의 자신감, 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 일정한 수유간격)의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 모델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6.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추가사례

다음 단계는 유사사례, 관련사례, 반대사례, 창안사례, 불법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 사례들이 어떠한 이유로 모델 사례가 될 수 없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속성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 1) 유사사례(Borderline case)

유사사례는 모델사례에서 제시된 모든 속성을 완전히 포함하지는 않으나 개념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일부를 포함하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태어난 지 5일째인 아기는 엄마의 젖을 빨고 있다. 젖을 빨 때마다 아기의 관자놀이와 아래턱이 움찔거리며, 빨고-삼키고-쉬는 과정을 율동적으로 반복하며, 수유 중 자극하

지 않아도 수유를 규칙적으로 지속하였다(빨기). 수유를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자 아기는 스스로 잠이 들었고, 엄마는 아기를 트림시킨 후 자리에 눕혔다(모성-영아 상호작용). 그런데 수유를 끝내고 잠든 지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기가 깨어나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기를 달랜 후 젖을 다시 물리려하였으나 유방 가까이로 다가가자 아기는 자지러지듯이 다시 울기 시작하였다. 급한 나머지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자 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조용해지며 젖병을 빨기 시작하여 우유 50 cc를 순식간에 먹어치운 후 곧 잠이 들었다.

위 사례는 영아의 수유행위인 빨기와 모성과 영아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속성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젖 물기에 실패한 점, 잠든 지 30분 후 다시 깨어 점과 보충식이(우유 50 cc)를 공급한 점은 모성과 영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음을 나타내므로, 위 사례는 개념의 속성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유사사례에 해당된다.

### 2) 관련사례(Related case)

관련사례는 분석하는 개념과 아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전염성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엄마는 모유수유를 할 수 없어 출산 시부터 분유로 아기를 키우고 있다. 출산한지 7일째인 아기가 잠에서 깨자 엄마는 수유한지 3시간이 다되었음을 확인(일정한 수유간격)하고는 소변으로 푹 젖은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아기의 하루 소변 기저귀 횟수가 5~6개 정도이고 대변기저귀도 2~3개 정도이며(영아의 적절한 배설), 아침에 깬 아기의 체중도 출생 시 보다 120 gm 정도 증가되고(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 수유간격도 약 3시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일정한 수유간격)을 확인 한 후로는 아기의 수유가 잘 되어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모성의 자신감). 손을 깨끗이 씻은 엄마는 젖병에 분유를 탄 다음 온도를 확인한 후 아이를 가슴 높이까지 안아서(수유자세) 젖병을 아기의 혀 위에 깊숙이 물렸다(모성-영아 상호작용). 아기는 젖병을 잘 물고(젖 물기) 열심히 빨고-삼키고-숨쉬기를 반복하였다(빨기). 아기가 삼킬 때마다 목구멍으로 우유 넘어가는 꿀꺽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모유전송), 젖병 속에 있던 분유를 다 비우자 아기는 빠는 것을 멈추었다. 엄마는 젖병을 빼내고 트림을 시킨 다음 아기가 잠이 들자 자리에 조용히 눕혔다. 평온하게 잠든 아기의 얼

굴(영아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보자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되었고 자신이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과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모성의 만족감과 편안함)

위 사례는 수유과정에서 수유행위(수유자세, 물기, 빨기), 모유전송, 모성-영아 상호작용, 욕구충족(모성과 영아의 만족감과 편안함, 모성의 자신감, 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 및 배설, 일정한 수유간격)이 일어나긴 하였으나, 모성의 유방을 통한 모유의 공급이 아니라 대체식이(분유)를 영아에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모유수유 과정이라고 볼 수 없어 관련사례에 해당된다.

### 3) 반대사례(Contrary case)

반대사례는 정의된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예로,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제왕절개로 출산한 지 3일째인 어머니는 아직도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힘든 상태이며 가스배출이 늦게 되어 오늘 아침도 죽을 먹었다. 보호자는 잠시 외출했고 모자동실 중인 아기는 1시간 전에 수유를 끝내고 잠들어 있다. 아기가 잠든 것을 확인 한 후 옆에서 같이 잠을 자던 어머니는 갑자기 짜증스레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모성-영아 상호작용 실패). 아기를 달래기 위해 몸을 일으키던 어머니는 수술 부위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렸으며, 수유한 지 1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일정한 수유간격 실패) 기저귀만 확인하고서 아기를 다시 침상에 눕혔다. 아기는 침상에 눕자마자 다시 짜증스럽게 울기 시작했고 이제는 안아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영아의 편안함과 만족감 실패). 잠시 고민 끝에 그녀는 젖을 먹이려고 유방 가까이로 아기를 데려왔으나 아기는 젖을 물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 보채기만 하였다(젖 물기 실패). 아기를 겨우 진정시킨 후 젖 물리기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아기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고(모성-영아 상호작용 실패), 급한 나머지 아기가 입을 크게 벌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유두를 입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다(젖 물기 실패). 아기를 안은 엄마의 어깨와 등은 앞으로 굽어져 있었고 몸은 긴장되어 있으며(부적절한 수유자세), 아기 때문에 쉬지 못하여 무척이나 힘들어 했다(모성의 편안함 실패). 아기의 얼굴은 짜증스러운 표정이며(영아의 편안함 실패), 처음엔 몇 번 힘차게 빨았으나 젖 삼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모유전송 실패) 아기는

빨기를 멈추고 곧 잠들어 버렸다(빨기 실패). 젖 먹이는 것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아기를 깨웠지만 반응이 없자 엄마는 젖에서 아기를 떼어내어 침상에 눕혔다. 아기는 태어난 후 하루에 1번 정도 변을 보았으며, 적절한 체중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 실패). 수유를 끝낸 후 그녀는 유두의 쓰라림과 유방의 팽윤으로 심한 불편함을 느꼈으며(모성의 편안함 실패) 혼자서 젖을 짜내 보려고 유축기를 사용해 보았으나 잘 나오지 않자, 간호사를 호출하였고 간호사를 보는 순간 그녀는 너무 힘들고 비참한 기분이 들어 울음을 터뜨렸다(모성의 만족감과 자신감 실패).

위 사례는 부적절한 수유자세, 젖 물기, 빨기로 모유수유행위(수유자세, 젖 물기, 빨기)가 모두 실패하였고, 모유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유전송에 실패하였다. 아기는 수유한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깨어서 울고,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한 수유간격과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에 실패하였으며, 모성이 영아의 수유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모성-영아 상호작용도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영아는 울다 지쳐 잠들었고 모성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은 모유수유를 통해 모성과 영아가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는데 실패하였으며, 모성은 유축기로 젖을 짜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실패하여 자신감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사례에는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속성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비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사례이다.

### 4) 창안사례(Invented case)

창안사례는 우리의 실제 경험 밖에서 상상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구성된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일상적인 상황 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여 그 속에 도출된 결정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출산한 지 14일째인 2년생 강아지 복순이와 그의 새끼 강아지는 따뜻한 햇살 아래 배를 드러낸 채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다. 어미 옆에서 길게 늘어져 자던 새끼 강아지는 소변을 보더니 잠이 깬 듯 깽깽거리기 시작한다. 복순이는 벌써 수유한지 꽤 시간이 흘렀음을 느끼고(일정한 수유간격) 새끼가 젖을 잘 물도록(모성-영아 상호작용) 누워있던 자세를 약간 변경해 주었다(수유자세). 그러자 새끼 강아지는 어미의 배에 코를 박고 젖 냄새를 맡으며 어미의 젖을 찾기

시작하더니 곧 어미의 유두를 찾아 깊숙이 물고(젓 물기) 힘차게 젓을 빨기 시작하였다(젓 빨기). 새끼 강아지는 빨고 삼키고 쉬는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였으며, 빨고 삼킬 때마다 입 밖으로 하얀 젓이 새어나왔고 목구멍으로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모유전송). 일정 시간이 경과하자 빠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물고 있던 유두를 입 밖으로 내놓고는 잠이 들었다. 젓을 충분히 먹은 듯 새끼의 배는 볼록해 보였으며, 사지를 늘어뜨린 채 평안한 모습으로 다시 잠에 빠져 들었다(영아의 만족감과 편안함). 수유를 끝낸 복순이의 유방은 부드러워져 있었고 불편감 없이 편안하였으며(모성의 편안함), 누워있는 자리가 새끼 강아지의 대·소변으로 축축하고 더러워지자(영아의 적절한 배설), 주인이 깔아준 깨끗한 옆 장소로 새끼를 물어 이동하였다. 복순이는 새끼의 체중이 출생 시 체중을 회복한 듯 제법 묵직하고(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 하루에 수유횟수와 대·소변 횟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자신의 수유가 잘 되어감에 자신감과 만족감이 생겨 안심한 듯 새끼 옆에서 단잠에 빠져들었다(모성의 만족감과 자신감).

위 사례는 출산한 어미 강아지와 새끼 강아지의 모유수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유행위(수유자세, 젓 물기, 젓 빨기), 모유전송, 모성-영아 상호작용, 육구충족(모성과 영아의 만족감과 편안함, 모성의 자신감, 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 일정한 수유간격)의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5) 불법사례(III-estimate case)

불법사례는 확인된 속성과는 다르게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예이다.

K씨는 모유수유를 무척이나 원하여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유수유를 시도하였지만 젓 물리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출산한 지 3일째인 그녀는 혼자서 젓을 물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간호사를 불러 도움을 요청하였고, 간호사는 유두가 짧아서 직접 수유가 힘들 것 같으니 유축하여 젓병으로 수유하는 것이 좋겠다며 유축기 사용을 권유하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출산 7일째까지 2~3시간 마다 규칙적으로 유축을 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유축 시 유두나 유방의 통증이 없이 편안함을 느꼈다(모성의 편안함). 아기가 울거나 보챌 때마다 냉장고에 보관된 젓을 하나씩 데워 아기를 가슴높이까지 안고(수유자세) 젓병으로 수유하였다(모성-영아 상호작용). 아기를 안고 젓

병을 입 가까이 대면 아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젓병을 깊이 문 다음(젓 물기), 빨고 삼키고 쉬는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였다(젓 빨기). 빨고 삼킬 때마다 입 밖으로 하얀 젓이 새어나왔고 목구멍으로 꿀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모유전송). 젓병에 있는 것을 다 먹어치운 아기는 물고 있던 젓병 꼭지를 입 밖으로 내밀고는 스프르 잠이 들었다(영아의 편안함). 포만감을 느낀 아기는 트립 이후에도 만족한 표정으로 잠에 빠져 있다(영아의 만족감). 그녀는 출산 7일째인 아기가 2~3시간 마다 규칙적으로 젓을 먹고(일정한 수유간격) 하루에 5~6개의 소변기저귀와 2~3개의 대변기저귀를 보고(영아의 적절한 배설), 일주일 만에 체중도 115 gm정도 증가(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한 것을 보며 자신의 수유가 잘 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족하였다(모성의 만족감과 자신감).

그러나 충분한 젓양유지를 위해서는 하루 10~12회 정도 규칙적으로 유축을 해야 하지만 일주일 지나자 그녀는 자다가 한밤중에 2~3번의 유축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그녀는 밤 12시 전까지만 유축하고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유축하기로 결심하였다. 유축횟수가 줄어들자 일회 유축량이 70~80 cc 정도이던 것이 14일이 지나자 40~50 cc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분유를 보충하기 시작한 이후 분유 보충량은 날이 갈수록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출산 4주경에 그녀는 단유를 결정하고 분유로 대체하였다.

위 사례는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속성인 수유행위(수유자세, 젓 물기, 빨기), 모유전송, 모성-영아 상호작용, 육구충족(모성과 영아의 만족감과 편안함, 모성의 자신감, 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 일정한 수유간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유축기를 통한 수유방법은 영아의 직접적인 모성의 젓 물기와 빨기를 통한 모유전송 과정이 아니므로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과는 다른 상황임을 나타낸다.

## 7.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선행요인(antecedents)과 결과(consequences)

선행요인은 개념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을 말하며, 결과는 그 개념이 발생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나 사건을 의미한다(Walker & Avant, 2005). 파악된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선행요인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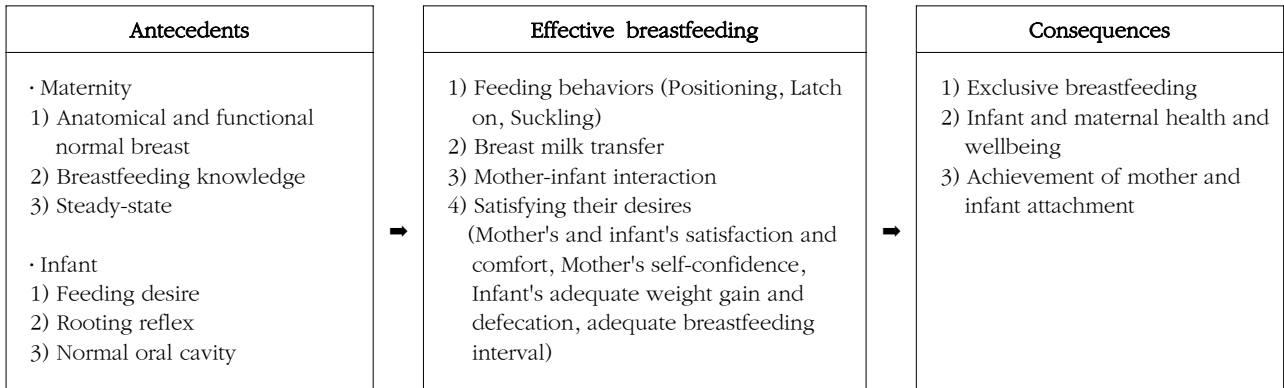


Figure 1. Identity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ffective breastfeeding.

1) 선행요인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선행요인은 먼저 모성의 유방이 유즙생산이 가능하고 젖 물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기능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수유를 위해서는 모성이 영아의 수유신호를 인지하며 배고픔의 신호가 부족하더라도 수면 중인 아기를 깨울 수 있어야 하며, 수유를 위한 준비와 올바른 수유자세, 젖 물리기, 빨기와 모유전송에 대한 증거 등의 기본적인 수유 관련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Jesen et al., 1994; Kim, 2003; Mulder, 2006; Mulford, 1992; Nelson, 2006). 영아는 자극이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거나 입을 벌리는 근원 반사가 있고 음압 형성에 필요한 정상적인 혀와 입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유 욕구를 나타내는 수유신호가 있어야 한다(Mulford, 1992; Shargo & Bocar, 1990).

2) 결과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결과로 모성과 영아는 건강하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완전모유수유를 지속하게 되고, 영아와 모성 사이는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된다(Kim, 2003; Mulder, 2006; Nelson, 2006).

8. 경험적 증거

경험적 증거는 개념의 속성이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Walker & Avant, 2005).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경험적 증거는 모성과 영아간의 모유수유 상호작용과정에 대한 결과가 기대했던 좋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

다. NANDA는 '효과적인 모유수유' 간호진단의 주요특성으로 효과적인 모성-영아 의사소통 패턴,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되는 젖 빨기와 삼키기, 윗령에 맞는 적당한 체중 유지, 수유 후 영아의 만족, 영아의 수유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모성의 자세유지, 옥시토신 분비증상 및 징후(모유분출), 영아의 적당한 배설, 모유수유 과정에 대한 만족감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효과적인 모유수유'라고 정의하였다(Carpenito, 2006).

또한 모유수유를 위한 지침서(Kim, 2003)에도 '효과적인 모유수유' 경험자들에게는 적절한 수유행위(수유자세, 젖 물기, 젖 빨기)와 적절한 모유전송 및 모성과 영아의 상호작용, 모성과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수유결과 등의 구체적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수유자세에 관한 경험적 증거는 영아의 귀-어깨-장골능이 일직선이 되고,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유방과 유두높이 정도이며, 얼굴이 정면으로 엄마의 유방을 향해 있어 삼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엄마와 아기의 배가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Shargo & Bocar, 1990). 젖 물기에 관한 경험적 증거는 영아의 입이 'K'자 형태로 크게 열려있어 윗턱까지 깊숙이 물어야 하며, 입술은 바깥으로 뒤집혀져 있고, 유두 아래에 아래 잇몸과 혀가 위치해야 한다(Jesen et al., 1994; Shargo & Bocar, 1990). 젖 빨기에 관한 경험적 증거는 윗턱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으로 빨고-삼키고-숨 쉬는 과정이 수유 중 자극 없이도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Kim, 2003; Mulder, 2006).

모유전송을 위한 경험적 증거는 수유과정 중의 갈증, 졸음, 유방의 따끔거림(Mulford, 1992)과 같은 모성의 주관적 보고나, 모유가 아기의 입안에 고이거나, 반대편 유방에서 젖이 흐르는 것, 삼키는 소리 등은 모유전송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이다(Kim, 2003; Mulder, 2006; Shargo & Bocar, 1990). 모성과 영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적 준거는 아기가 배고픔에 대한 신호를 엄마에게 보내고 엄마는 이 신호를 수유신호로 파악하여 젖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욕구충족(영아의 만족감, 편안함,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 일정한 수유간격)에 대한 경험적 준거는 영아는 수유를 끝낸 후 만족스런 표정으로 모성의 유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자극을 주어도 근원반사를 나타내지 않고, 조용하며 이완되어 있고, 율령에 맞는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 일정한 수유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다(ILCA, 2005; Mulder, 2006). 모성의 만족감, 편안함과 자신감에 대한 경험적 준거는 수유를 끝낸 후 유방과 유두에 통증을 느끼지 않고 유방이 비워진 시원함을 느끼며 영아에게 젖을 주는 것이 만족스럽고, 모유수유에 대한 기쁨과 자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LCA, 2005; Mulder, 2006).

## 결론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05)의 방법을 이용한 개념 분석 연구로, 분석결과 효과적인 모유수유는 '모성과 영아의 적절한 수유행위(수유자세, 젖 물기, 빨기)에 의해 모유가 유방에서 영아에게 직접 전송되는 일련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모성과 영아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하고,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속성은 수유행위(수유자세, 젖 물리기, 젖 빨기), 모유전송, 모성-영아 상호작용, 욕구충족(모성과 영아의 만족감과 편안함, 모성의 자신감, 영아의 적절한 체중증가와 배설, 일정한 수유간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모유수유 개념의 정립과 명확한 이해를 도왔다는 점과 여성간호와 아동간호영역에서 모유수유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효과적인 모유수유의 정의와 속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간호중재와 모유수유 효과성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Carpenito, L. J. (2006). *Nursing diagnosis: Application to clinical practice (11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Chin, L. Y., & Amir, L. H. (2008). Survey of patient satisfaction with the breastfeeding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of the Royal Women's Hospital, Melbourne.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4*(8), 1-11.
- Collins English Dictionary. (2010). *Collins english dictionary*. London: Harper Collins.
- Ertem, I. O., Votto, N., & Leventhal, J. M. (2001). The timing and predictors of the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Pediatrics, 107*(3), 543-548.
- International Lactation Consultant Association. (2005). *Clinical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exclusive breastfeeding*. Retrieved on October 15, 2010, from <http://www.ilca.org>
- Jensen, D., Wallace, S., & Kelsay, P. (1994). LATCH: A breastfeeding charting system and documentation tool.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23*(1), 27-32.
- Jung, E. J. (2008). *Influence of initiating breastfeeding on duration of breastfeed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H. S. (2003). *Guide to breastfeeding*. Seoul: Hyunmoonsa.
- Korean Committee for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5). *Guide to successful breastfeeding*. Seoul: Korean Committee for UNICEF.
- Korean Lactation Consultant Association. (2002, November). *Lamaze breastfeeding support specialist training programm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 Seoul.
- Leff, E. W., Jefferis, S. C., & Gagne, M. P. (1994). The development of the maternal breastfeeding evaluation scale. *Journal of Human Lactation, 10*(2), 105-111.
- Livingstone, V. (1995). Breastfeeding kinetics. A problem-solving approach to breastfeeding difficulties. *World Review of Nutrition and Dietetics, 78*, 28-54.
- Matthews, M. K. (1988). Developing an instrument to assess infant breastfeeding behaviour in the early neonatal period. *Midwifery, 4*(4), 154-165.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200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Nutrition survey*. Retrieved October 15, 2010, from <http://www.mw.go.kr>
- Minjungserim Editorial Board. (2007). *Minjung essence chinese dictionary*. Paju: Minjungseorim.
- Mulder, P. J. (2006). A concept analysis of effective breastfeeding.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5*(3), 332-339.
- Mulder, P. J., & Johnson, T. S. (2010). The beginning breastfeeding survey: Measuring mother's perceptions of breastfeeding effectiveness during the postpartum hospitalizatio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3*(4), 329-344.
- Mulford, C. (1992). The mother-baby assessment(MBA): An "Apgar Score" for breastfeeding. *Journal of Human Lactation, 8*(2), 79-82.
-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0). *Effectiveness+breastmilk*. Retrieved October 15, 2010, from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Nelson, A. M. (2006). Toward a situation specific theory of breastfeeding.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An International Journal*, 20(1), 9-27
- Park, S. H., & Koh, H. J. (2001). Effect of breastfeeding education and follow up care on the breastfeeding rate and breastfeeding method.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1), 30-43.
- Riordan, J., Bibb, D., Miller, M., & Rawlins, T. (2001). Predicting breastfeeding duration using the LATCH breast feeding assessment tool. *Journal of Human Lactation*, 17(1), 20-23
- Shin, H. J. (2006). Exploring the meaning of breastfeeding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al Anthropology*, 9(2), 89-115.
- Shrago, L., & Bocar, D. (1990). The infant's contribution to breastfeeding.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9(3), 209-215.
- Walker, L. O., & Avant, K. C. (2005).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Wilson, J. (1963). *Thinking with concept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jnar, D. (2004). Maternal perceptions of early breastfeeding experience and breastfeeding outcome at 6 weeks. *Clinical Effectiveness in Nurse*, 8, 93-100.
- World Health Organization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3). *Global strategy for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Academy of Breastfeeding Medicine Korea, Trans.). Seoul: Academy of Breastfeeding Medicine Korea. (Original work fifty-fifth World Health Assembly provisional agenda item 55.25)
- Yang, H. J., Lee, Y. E., & Lee, S. O. (2005). Factors related to neonatal suckling in the initiation of breastfeeding in primiparous mothers.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1(3), 202-208.
- ネット八広, (2007). *乳房管理学*(Kim, E. R., Trans.). Seoul: Knowledge and Creative.